

한향림 현대도자미술관 소장기획전 1

황중구 '현대도예의 시작'



황중구 **백자화면 추상무늬병**, Ø195xH465mm, 소진년도 1987

2011.3.8^{TUE}~2012.2.26^{SUN}

황중구의 부친 황인준(1894~1950)은 1937년 고려청자연구소(高麗靑瓷研究所)를 설립, 전통도자기 제작기법을 연구하고 개량하면서 고려청자 재현 작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부친으로부터 청자 제작기술을 전수 받은 황중구는 청자의 태도, 유약, 형태, 문양 등 고려시대 청자와 비교하여 손색없을 정도의 재현품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1959년 국내 최초로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도예교육을 시작하여 후진양성에 힘쓰는 것은 물론 도예 연구소를 설립, 청자의 전통적인 형태와 문양에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상감청자 등을 제작하면서, 생활 속에서 전통도자의 영역을 확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도자기는 과학과 예술의 만남에서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신념하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작업들은 고려청자 제작과정의 현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황중구의 작품을 통해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후 황폐화된 도예계에 전통도자의 뿌리를 다시 찾고 계승시키는 한편 현대도자에술로 이끌어 주었던 작가의 노력과 숨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향림 현대도자미술관
Han Hyang Lim Museum of Contemporary Ceramic Art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헤이리 예술마을 1652-208 Tel. 070-4161-7275

한향림 현대도자미술관 소장기획전 2

권순형 '도자기 위로 번진 풍경'



권순형 **도자기 위로 번진 풍경**, Ø290xH275mm, 1996

2011.10.15^{SAT}~2012.2.26^{SUN}

한향림 현대도자미술관에서는 두 번째 소장기획전으로 (권순형, 도자기 위로 번진 풍경)을 기획하였습니다. 한국 현대도예 1세대 작가인 권순형은 미국유학에서 돌아온 후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도예교육을 시작하였는데 고려청자나 조선백자의 완성된 도자역사의 무게에서 벗어나 현대도예의 출발점에서 새로운 한국현대도예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형태적으로는 물레 성형에 의한 항아리와 판 성형의 기하학적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며 기면위에 미국유학시절부터 시작된 많은 양의 유약실험에 의해 개발된 색유와 결정유를 담금 기법이나 이중시유 기법으로 시유하여, 소성 후에 나타나는 추상적 표현효과를 '현대성'이라는 현대도예의 과제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통의 무게를 짊어진 현대도에 1세대의 일보전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화동 성당 등의 도자벽화 작업은 도자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향림 현대도자미술관
Han Hyang Lim Museum of Contemporary Ceramic Art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헤이리 예술마을 1652-208 Tel. 070-4161-7275